

주영목의 '夜月시집' 1

세 상 에 서

가 장

달 콤 한

# 커피타임



맑은샘

## 夜 月

밤에 뜨는 달은  
와 저래 슬퍼노?

그 옛날, 에텐의 중앙(中央)  
희한한 도둑질 있어  
달은 견고한 증인(證人)이었다.

돌고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  
인육(人肉)과 피와 탄식은  
바퀴가 즐겨 찾는 양식이더라.

밤에 뜨는 달은  
와 저래 슬퍼노?

‘자랑’은 입술에 고리라도  
씩지 않는 희망은 하나 없더라.  
어화 둥둥 어화 넘차 둥둥

밤에 뜨는 달은

와 이리 좋노?

좋은 소식의 왕국(王國) 열매

하늘 아래 퍼져 나가니

달은 졸지 않는 증인이구나.

밤에 뜨는 달은

와 이리 좋노?

달 거울에 비친 땅은

새로운 왕국의 영토

새 달같이, 새 땅같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말하렴, 너의 증인됨을!

## 차례

|    |              |    |
|----|--------------|----|
| 01 | 내 사랑을 아시나요?  | 10 |
| 02 | 봉사의 기쁨       | 13 |
| 03 | 거미줄과 민들레 씨   | 15 |
| 04 | 알펜로제의 피신처    | 17 |
| 05 | 陽村 풍경        | 19 |
| 06 | 낙원까지         | 21 |
| 07 | 일곱 가지 색의 무지개 | 25 |
| 08 | 인천 대공원記      | 27 |
| 09 | 참된 생명        | 29 |
| 10 | 가을抒情         | 31 |
| 11 | 가을을 넘어...    | 33 |
| 12 | 가을 감상법       | 34 |
| 13 | 커피, 그리고 가을   | 36 |
| 14 | 행복한 종        | 39 |
| 15 | 둥근 빵         | 41 |
| 16 | 詩를 날리면서      | 42 |
| 17 | 60, 61년 生    | 43 |
| 18 | 받아쓰기         | 47 |

|    |                |    |
|----|----------------|----|
| 19 | 목상동 노란집        | 49 |
| 20 | 꽈배기 과자 봉지      | 51 |
| 21 | 밤 비            | 52 |
| 22 | 비 내리는 날의 풍경    | 53 |
| 23 | 노을             | 55 |
| 24 | A coffee break | 56 |
| 25 | 집회로의 초대        | 57 |
| 26 | 꽃사과            | 59 |
| 27 | 분수             | 60 |
| 28 | 忠              | 62 |
| 29 | 풍경 5題          | 63 |
| 30 | 비눗방울의 꿈        | 65 |
| 31 | 하늘에 쌓은 보물      | 66 |
| 32 | 짐승             | 68 |
| 33 |                | 72 |
| 34 | 꼭추에게           | 73 |
| 35 | 기다림            | 80 |
| 36 | 어느 이방인의 詩      | 81 |

|    |                        |     |
|----|------------------------|-----|
| 37 | 자화상                    | 83  |
| 38 | 절벽 위에서                 | 85  |
| 39 | 젖은 마음                  | 87  |
| 40 | 인 내                    | 88  |
| 41 | 단풍을 보며...              | 90  |
| 42 | 길                      | 92  |
| 43 | ‘짐’의 노래                | 93  |
| 44 | 문수산에 사는 새              | 95  |
| 45 | 얼 굴                    | 96  |
| 46 | 노인과 성서                 | 100 |
| 47 | 세 월                    | 102 |
| 48 | 먼 데 있는 벗에게             | 103 |
| 49 | 주인의 도구                 | 104 |
| 50 | 이 길로 걸으리               | 106 |
| 51 |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날          | 108 |
| 52 | 딸에게                    | 110 |
| 53 | 거물대 斷想                 | 111 |
| 54 | 아내에게FROM THE NEW WORLD | 113 |
| 55 | 꿈에서 본 “예수”             | 119 |

|    |            |     |
|----|------------|-----|
| 56 | 무 대        | 121 |
| 57 | 無          | 123 |
| 58 | 꽃          | 125 |
| 59 | 그들만의 잔치    | 127 |
| 60 | 기다림2       | 131 |
| 61 | 목련2        | 132 |
| 62 | 시 련        | 133 |
| 63 | 시편(詩篇)     | 134 |
| 64 | 쓰레기가 열린 나무 | 137 |
| 65 | 야생화        | 138 |
| 66 | 잃어버린 밤     | 139 |
| 67 | 회 중(會衆)    | 142 |
| 68 | 에필로그       | 145 |

## 비 내리는 날의 풍경

비 내리는 날

똑똑똑

처마에서

똑

떨어지는

빗방울

집 안까지 똑똑

울리는

노크 소리

똑똑똑

물방울들이 만나

반갑게 나누는



똑똑똑  
'희망' 이야기

많은 말에  
흠뻑 젖은

똑똑  
우산 둘

## 아내에게 FROM THE NEW WORLD

아내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백향목 향기가 간밤에 아내의 콧속으로 들어가서  
 몸 안 구석구석 흠씨를 뿌려 놓더니  
 생명의 꽃이 되어 잠든 피부를 깨우면서 피어납니다.  
 담요가 잠옷을 비비는 감미로운 촉감은  
 아내의 단잠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새근거리는 아내의 숨소리는  
 밤을 향하여 내는 유일한 음성 -  
 “쉿! 조용히 해! 차렷! 열중 쉬어!  
 그렇게 아침까지 있는 거야!”  
 아내의 피부는 매끄러운 차돌 같고  
 도톰한 입술은 사랑을 나누는 부부 같으며  
 감은 눈은 야자나무가 심겨진 모래언덕 같습니다.  
 야자나무 끝에 묻은 하얀 먼지는  
 길 잃은 바람이 걸어 놓은 표지(標識)랄까요?  
 적은 빛으로도 분명히 보이는 ‘오늘’의 특징입니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낙원(樂園)의 환영단처럼 줄을 지어 들어와서는  
공손하게 밤새 안부를 묻습니다, 첫날밤이 어땠느냐고.  
한쪽 벽 전체는 자수정이 붙어 있고, 거기에서  
얇고 투명한 비단이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영롱한 그물처럼 온 방 안에 펼쳐집니다.  
마치 아내가 바다 속 용궁에서 잠자는 인어인 양  
그 인어를 사로잡으려는 것처럼 -  
아내의 눈꺼풀은 아직 모래로 무겁습니다.  
서랍처럼 조금 열리다가  
눈동자가 굴러 나오기 전에 얼른 닫혀 버립니다.  
여태 옛 추억에 잠겨 있는 걸까요?  
검단 사거리의 붕어빵 장수를 기억해 내는 걸까요?  
아내는 예술이를 배에 담고 있었고  
붕어빵은 예술이의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붕어빵을 구워 낼 때마다  
태중의 아이도 잘 익은 붕어빵이 되어 갔습니다.  
여름을 뺀 세 계절 동안  
아내가 여호와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붕어빵은 자기를 팔아 주었습니다.  
아내의 닫힌 눈꺼풀이 떨고 있습니다.  
모래언덕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래가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디론가 방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양촌(陽村)’인가요, ‘월곶’인가요?  
‘대곶’ 쪽인가요, ‘통진(通津)’ 쪽인가요?  
월곶이라면, ‘서원 팰리스’를 찾는 게 맞을 겁니다.  
아내는 여러 해 동안 거기에서 일했습니다.  
프라이팬을 페퍼로 문지르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팔도 손가락도 아프고, 한쪽 다리도 아팠지요.  
매일 계속되는 잔업(殘業)은, 아내를  
가족에게서 멀리 떼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아내는  
나와 함께 사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다리에 붙였던 그 파스의 열기(熱氣)를  
아내는 지금도 기억할까요? 아마도 기억할까요?  
아내는 배시시 웃으면서 자리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늦잠을 잔 까닭에 좀 부끄러운 걸까요?  
흑운모를 깔 바닥으로 아내의 발이  
두 마리 하얀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걷기 시작합니다, 느릿느릿 거위처럼.  
비교적 짧은 아내의 다리가  
학처럼 우아하게 길어질 날을 기대합니다.

방문을 열고 문지방 앞에 선 아내는  
턱을 사뿐하게 뛰어넘습니다, 십자매처럼.  
이제 침대에서 보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현관으로 이어진 통로에서, 아내는  
병아리들을 지키려는 암탉처럼 달려갑니다.  
노란색 긴 잠옷이 발에 밟힐 뻔하였지만  
아내의 잦 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서로 부리를 비벼 대는 잉꼬 한 쌍처럼  
사랑의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지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지요.  
수다쟁이 앵무새처럼 할 말이 많지만  
“아!” 하는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출구를 찾은 공작(孔雀)은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침대에서 내려온 유일한 목적인 양.  
현관문을 열어젖혔을 때  
아내의 눈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입은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만들어 낸 신기루처럼  
신세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룩한 기록 속에서 보았던 설계도대로  
신세계는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생물처럼 신세계는 드디어 활동하는데  
아내는 무대에 선 초대 가수가 되어  
하늘의 조명과 새들의 반주를 받으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  
감사의 시(詩)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세계가 끝이 없듯이 끝이 없을 것처럼  
낙원의 막이 내려올 때에야 내려올 것처럼  
아내야, 건강한 꽃사슴 같은 나의 아내야!  
눈을 높이 들어 저 하늘을 보렴 -  
조상들을 통해 알려진 탄식할 사연들  
모두 잊고 노래하는 저 새들을 보렴 -  
모든 것을 잃었다지만  
잃은 것 이상을 가진 것은  
너를 예까지 데려오시고  
너를 지고 가실 여호와 -  
큰 요새 안에, 큰 방패 뒤에 있기 때문이다.  
아내야, '야'의 딸만 한 나의 아내야  
아내야, 아브라함의 딸만 한 나의 아내야  
노란색 긴 잠옷이 어울리는 나의 아내야  
네가 보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  
네가 원하는 것이 '야'의 마음에 있으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보려무나, 영원토록 소유해 갈 신세계를!  
두 배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집!  
너의 첫걸음이 영원을 헤아려서  
(너는 아침마다 보는 나의 거울 같은 아내란다)  
너의 사랑스런 모습이 영원토록 내 눈앞에 있어라!

## 無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  
 ‘有’가 ‘無’가 되었네  
 있을 때는 계속 있지 못하여  
 그리도 있고자 하였던가!

하늘에 노래 하나 날려  
 나의 ‘있던 것’을 기억하게 할까?  
 지붕 위에 동상을 세우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 둘까?

노래는 머잖아  
 유행 따라 잊혀지고  
 동상을 보는 눈들은  
 마음에서 멀어지더라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  
 ‘有’는 ‘無’가 되고



‘無’는 글자의 작은 차이로  
한 생(生)을 없애 버렸네

‘있는 것’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있던 것’에 대해 잠시 말하겠지만  
그들도 없어지리니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 꽃

(꽃을 칼라로 당겨 낸  
 흑백의 옅은 배경  
 꽃의 이름과 모양은  
 특정하지 않는다)

하나.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예쁜 꽃이 피어 있다  
 누구의 꽃일까?  
 누가 보낸 꽃일까?

둘.

꽃이 나를 불렀을 때에  
 나는 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꽃을 불렀을 때에

나는 꽃을 사랑하였다

셋.

내가 꽃이 될 수 없고  
꽃이 내가 될 수 없음에  
나는 꽃을 배운다  
배워서 꽃처럼 살아간다

넷.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꽃이 있다  
누구의 손에 건네줄까  
나를 사랑한 이 꽃을?

## 잃어버린 밤

밤을 잃어버렸다 사거리의 상점 불빛을 받으면서 종종걸음 치는 지친 다리에는 다음날을 위한 밤이 없다 밤을 잃어버렸다 라이브 가수의 노래를 귓전으로 들으며 그 날의 일상을 잡담으로 풀어 놓는 젊은 얼굴들에도, 연기 뿜는 꺼칠한 입술 주변으로도, 하얀 이빨과 이빨 사이에도 밤이 없다 밤을 잃어버렸다 광적(狂的)으로 흔드는 신체의 곡선 위로 어지러운 조명이 난도질하여도 그 속에 밤은 없다 밤을 잃어버렸다 키 큰 빌딩의 작은 네모 불빛들이 그 너머의 고단한 삶을 속삭이고, 일렬종대의 긴 가로등 행렬이 모조(模造) 태양처럼 빛을 토해 내는데, 그사이로 던져 놓은 나무토막처럼 미끄러지는 자동차의 뒷모습이 보인다 앰블런스의 요란한 경광등 아래로 보일 듯 말 듯한 두 바퀴 사이에서도 밤은 없다 밤을 잃어버렸다 골목길로 들어서면, 거인처럼 서 있는 불빛 아래로 밤을 잊은 고양이가 노란 음식물 봉지를 뜯고 있다 유난히 밤이 깊었던 그 자리에서는 버려진 연탄재도, 형겅 인형도, 생선뼈도 아침까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은 골목의 윤곽선도 뭉개 버려서 길을 잘 아는 ‘아이’라도 조심조심 밤을 달래야 물에 빠지지 않고 돌에 걸려 넘어지

지 않고 공중변소의 불그레한 불빛까지 갈 수 있었다 밤은 시장(市場) 골목의 출렁거리는 포장 위에서도, 서로 영킨 줄이 바람을 비비며 내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있었다 ‘규정이’의 대문 앞에 서면, 배를 내민 나무 대문이 먹물처럼 어둡으로 번져 가고 모두가 손을 들어 동의(同意)하는 것처럼 밤의 어둠과 깊은 잠 속으로 자신을 잠그고 있었다 ‘아이’가 밤길을 걸을 때면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어둠이 모퉁이에서 얼굴을 살그미 내밀고, 처마 끝에 걸터앉아, 양철 간판 위에서, ‘아이’의 가게 앞 마루 밑에서, 굴뚝 아래에서 움트는 새싹처럼 속삭이곤 했다 “쉿! 조심해, 밤을 깨우지 않도록!” 밤은 잠자리에서도 포근하였다 바람에 간판 흔들리는 소리, 눈보라가 쓸고 가는 소리, 집 어느 구석에서 귀뚜라미 소리, 옆자리에 누운 엄마의 얇은 숨소리…… 이 모든 소리가 얼음에 뿌리는 굵은 소금이 되어 밤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해 주었던 밤 밤 밤 밤 밤이 어깨 위로 눈송이처럼 소록소록 내린다 내리면서 쌓인다 공중에서 은가루처럼 뿌려지다가, 골목에서 골목으로 개구쟁이 아이들처럼 ‘우-’ 몰려다니다가, 눈사람처럼 멍쳐지더니 저만치 앞에서 걸어온다 ‘쿵쿵쿵쿵’ 땅을 울리면서, 어둠을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처럼 밤 밤이다 밤은 잠자는 아기의 숨소리처럼 새근거린다 ‘아이’는 훌륭한 작가가 되어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명성을 얻어 교단에서 존경을 받다가, 아니, 고개를 젓고, 자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군인이 된다 흰머리와 수염을 쓰다듬고 그사이로 살포시 미소를



지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이 된다 밤은 꿈이 있어서 더 좋다  
꿈은 마르지 않는 바다처럼 소재(素材)의 무궁무진함을 자랑한다 밤  
밤이다 밤이 왔다 ‘아이’는 밤의 포근한 품속에 자리를 깔고 더할 나  
위 없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눈을 감는다 눈을 뜰 때까지의 모든 상  
황을 밤의 재량에 맡기면서 밤 밤 밤은 그렇게 깊어 간다 밤 밤이다  
밤이 왔다 ‘홈플러스’의 눈부신 불빛 아래에는 밤이 없다 밤을 잃어  
버렸다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부르는 경적 소리에, 신호를 무시하  
고 질주하는 버스의 뒷모습에도, 가방을 멘 학생의 처진 어깨 위에  
도 밤이 없다 밤이 어디로 갔을까? 어른이 된 ‘아이’의 신발 속에 누  
워 있을까? 가로수의 잎사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까? 지하도  
의 눅눅한 구석에 얼굴을 파묻고 웅크리고 있을까? 저기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혹시 낮익은 얼굴이 보일까? 그 얼굴이 아래를 내려다  
볼까? 솜털처럼 나긋나긋 내려앉던 밤이 놀란 참새 떼처럼 날아가  
버렸다 밤의 빈자리 밤이 없다 밤은 어디 있을까? 밤을 잃어버렸다!  
밤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 틈에 끼어 걸어가는 밤은 이제 그들에  
게는 낯선 얼굴이다 밤을 잊은 지 오래된 사람들 뒤에서 밤은 허둥  
거리며 걸어간다 신호등의 빨간 불이 경고를 발하는데, 밤은 횡단보  
도 위에서 흔들린다 자동차의 불빛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도 못  
본 듯이, 안 보는 듯이 머리를 떨군 채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 커피타임

2016년 12월 06일 초판 1쇄 인쇄 | 2016년 12월 12일 1쇄 발행

지은이 · 주영목

펴낸이 · 김양수

펴낸곳 · 맑은샘 | 출판등록 · 제2012-000035

주소 · (우 10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주엽동) 서현프라자 604호

전화 · 031-906-5006 | 팩스 · 031-906-5079

이메일 · okbook1234@naver.com | 홈페이지 · www.booksam.co.kr

ISBN 979-11-5778-173-7 (03810)

\* 이 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6029778)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맑은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파손된 책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